



# 중국 6월1일부터 항만 보안료 부과기로 결정

## 20피트 컨테이너 2.5달러, 40피트 3.7달러

중국이 오는 6월1일부터 모든 국제 무역항에서 항만 보안료(Port Security Charges)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항만부담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항만 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항만시설 보안 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중국의 모든 항만 시설 및 터미널 운영업체들은 20피트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2.5달러, 40피트 컨테이너는 3.7달러, 그리고 벌크화물에는 대해서는 톤당 0.06달러씩 항만 보안료를 선사들에 대해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 여객의 경우도 일정한 항만 보안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 금액을 내야 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 컨테이너와 화학 비료 및 제품에 대해서는 보안료가 면제되는데, 이 규칙은 2009년 5월31일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교통부 관계자는 항만에서 보안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안 기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 항만의 경우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을 이행하기 위해 보안장비와 시설을 구입하고, 인력을 훈련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 같은 보안료 부과가 불가피하다

고 강조했다.

중국 교통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항만 시설 운영업체들은 아직 중앙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지를 받지 못해 항만 보안료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 지 여부와 징수한 보안료의 사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는 2002년 11월 선박과 항만 등을 테러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ISPS Code를 제정, 2004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HR, 정기선시황 2009년 회복 전망

세계정기선시황은 선복과잉의 심화로 단기 시황 전망은 어둡지만, 2009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Howe Robinson의 관계자는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Containerisation International's Global Liner Shipping Conference에서 컨테이너선 단기시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으며, 부정적 예측의 근거는 많은 이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선복공급 과잉을 들었다.

그는 그동안 컨테이너 신조선 인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황이 하락하지 않았던 것은, 대형선 발주 증가가 상대적으로 발주가 부진했던 중소형선 투자로 상쇄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의 선대 대거 항로 유입으로 인한 시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시황다운 사이클은 2009년에 다시 선복 부족현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장기 시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